

한국타이어(주)

현대자동차와 공동 마케팅 실시
부산 모터쇼 인기몰이
벤투스 전시관

국제모터쇼가 한창인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의 전시장. 벤투스전시관에는 노란색 한국타이어의 스티커를 가져가려는사람들과 멋진 벤투스겔들과 즉석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정해진 시간에 열리는 깜짝 이벤트에도 참가하려고 약속 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실문지에 성실히 응답하는 사람들, 제품에 대해 각종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포털레이싱가를 신기하듯 만져보고 직접 타 보는 아이들 등 실내에 마련된 모터쇼 전시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두 한국타이어 벤투스관에 모인 듯했다. 또 국내의 각 매니아들이 개최한 튜닝용 차량 30대도 전시해 벤투스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이번 기간 동안 눈여겨 볼 점은 벤투스관 쇼카(Show Car)로 현대의 투스카니 튜닝 차량과 터블런스 자동차 경주차를 전시를 하는가 하면, 16일에는 부산모터쇼의 기념 행사로 신호공단 특별 경기장에서 투스카니·벤투스컵 드래그레이싱도 열린 것.

이처럼 한국타이어 행사에 현대자동차도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은 자동차와 타이어라는 불가분의 제품 특성을 감안, 대기업 간 공동 마케팅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특수를 노리기 위함이다.

이번 공동 마케팅은 당사가 초광폭 타이어 벤투스 스포츠 K104와 고성능 스포츠카 투스카니를 출시하면서 합심. 최고 기술력의 신제품이라는 점과 핵심 소비계층이 스피드와 고성능 High Performance를 요구하는 자동차 매니아라는 점에서 전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투스카니 홍보시 한국타이어 벤투스 제품의 로고와 이미지 노출, ASA 휠 로고 노출, 부산 모터쇼등 각종 전시 행사에 투스카니에 벤투스 타이어를 장착하는 등의 제품 홍보와 양사가 공동으로 드래그 레이스, 드라이빙스쿨 등의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타이어 고객만족 1위로 선정

한국타이어가 2001년도 고객만족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주관하여 전국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 10,3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승용차 타이어부분 고객만족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9월 18일 KCSI 1위 기업 리셉션 시상식에서 있었다. 한국타이어는 높은 회사 신뢰도, 직원응대태도, 그리고 제품의 안정감, 품질비 절절가격 등에 우세한 경과를 보였다. 고객의 마음 속에 잠겨진 인식을 평가한 결과인 이번 수상으로 향후 재구매의향, 매출과도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블랙버드V, 2001 우수산업디자인
선정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성능 '만점' 디자인도 'Good'

브랜드 파워 1위를 2년 연속 차지한 블랙버드V가 이번에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2001년 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전에서 블랙버드V가 당당히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다. 강인한 독수리를 연상시키는 패턴 디자인의 블랙버드V는 반면 부드러운 동양난의 이미지도 갖고 있는 것이 특징. 이러한 패턴은 고속주행 성능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족시킨다. V형과 3열 직선 그루브패턴이 주행 중 넓은 접지면적과 균일한 접지압력으로 고속주행 성능을 더욱 발휘하게 한다. 주행 중 빗길 노면에서 배수성을 높게 해 젖은 노면에서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중앙 그루브의 Y형(Eagle Aqua Groove Pattern) 형상과 이중적빗살무늬(Dual Angle Serration)의 사이드월 디자인 등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제도는 현재 국내에 시판 중에 있거나 시판 예정인 상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이 정부가 우수 디자인 상품임을 인증하여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에 수상한 블랙버드V도 전체 응모상품 750종 중 1차~2차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 제품을 물리치고 3차 심사(총 38개 상품 수상)까지 통과하여 '2001 밀레니엄상품(KMP)'과 'Good Design' 상품으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굿디자인 상품은 인터넷 www.design.DB.com에 들어가면 사이비 전시회에서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다.

FOCUS

한국타이어가 국내 최초로 세계 최고 스피드 등급 타이어인 벤투스 스포츠 K104를 개발했다. 300km/h의 속도에서도 탁월한 조종안정성을 갖는 Y-GRADE 타이어일 뿐만 아니라 레이싱 타이어의 기술력과 스피드, 매니아들의 요구성능이 반영된 도로 위의 레이싱 타이어이기도 하다. 현재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선 벤투스 스포츠 K104는 단순히 신제품의 개발만이 아니라 한국타이어의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기에 더욱 가치가 크다. 벤투스 스포츠 K104로 명명된 이번 제품은 시속 300km에서도 내구성과 조종 안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Y-GRADE 타이어로, Y-GRADE 타이어는 포르테·페라디 등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들에 장착되는 타이어 테크놀로지의 결정체이다.

타이어의 스피드 등급은 Y(300km/h) 등급이 마지막이다. 한마디로 말해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타이어 중 이보다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어는 없다는 말.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타이어 중 최고속도의 타이어는 ZR급에서도 W grade(Max 270km/h), 그러나 벤투스 스포츠 K104는 ZR급 중에서도 한차원 높은 Y grade로 최고의 속도 등급을 자랑한다. 3년여에 걸쳐 50억원을 투자한 벤투스 스포츠 K104는 한국타이어가 모터스포츠 개발에 적용된 레이싱 타이어 기술력과 튜닝 매니아들의 타이어 성능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국내 도로 조건에

맞게 설계된 초고성능 타이어이다. 실제 외산 타이어의 경우 도로 및 차량 등 주행 조건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벤투스 스포츠 K104는 한국타이어의 국내 모터스포츠활동 및 F3타이어 개발에 사용된 레이싱 타이어의 기술력과 드래그레이싱 타이어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도로 조건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서 외산 타이어보다도 성능이 더욱 탁월하다.

벤투스 스포츠, K104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속에서 달리기 위한 디자인 테크놀로지가 총동원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방향성 트레드 패턴을 채용해 초고속 주행시에도 탁월한 주행성능이 보장되는 데, 일방향성 패턴 디자인은 작진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핸들조작이 유연해 전체적으로 UHP타이어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디자인이다. 더욱이 트레드 중앙에 센터 리브를 배치해 끊임없이 노면과의 접지로 고속주행에서의 조종 안정성을 배가시켰다. 또 타이어 어깨 부근에 블록들의 크기를 확대하고 미세한 홈(커프)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화시켜 코너링시 접지면적을 확대시키고 블록의 변형을 최소화시켜 최고의 코너링 성능을 구현하였다고 간결한 타이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런가 하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의 트레드 홈 및 블록의 배치로 접지면적을 극대화시키고, 균일접지압을 실현해 편마모 방지 및 탁월한 노면장악력을 실현했다. 중앙 2개의 휠그루브를 통해 배수성을 향상시켜 젖은 노면에서의 수막현상도 최소화하였다. 벤투스 스포츠 K104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구조설계의 최적화를 통해 핸들링 및 조종안정성을 극대화시켰다는 점이다. 초고성능 타이어는 국한조건에서 조종안정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휠에 형성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조종안정성을 포함한 모든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

벤투스스포츠 K104는 기존제품 대비 휠과 타이어가 맞는 부분이 최상으로 유지되도록 최신 해석 Tool을 사용하여 어떠한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트레드부에 Triple Radius 프로파일을 채용하여 급격한 코너링이나 초고속에서의 제동시에도 최상의 접지력을 유지하도록 개발하였다.

벤투스 스포츠 K104는 한국타이어의 레이싱 타이어의 컴파운드에 최대한 응용되었다. 레이싱 타이어 중 컴파운드 기술은타이어의 그립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벤투스 스포츠 K104는 한국타이어가 국내 모터스포츠 활동을 통해 축적된 레이싱 타이어의 컴파운드 기술과 최근 개발 완료된 F3 타이어의 컴파운드가 응용되었으며, 특히 독일 유수 전문접지로부터도 인정받은 Super Silica Tread 컴파운드를 채용하여 젖은 노면을 포함한 모든 도로 조건에서 놀라운 접지력과 제동력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벤투스 스포츠 K104는 한국타이어 레이싱 타이어의 도로용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벤투스 스포츠 K104는 현재 15인치에서부터 20인치, 30~55시리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되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는 국내 모든 매니아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현대자동차에서 스포츠카인 '투스카니' 출시에 현대와 손잡고 홍보영화를 공동제작하고 부산모터쇼 드래그 레이스, 각종 전시회에 공동으로 신제품 출시 마케팅을 펼쳤다. 우리 회사가 브랜드 파워 강화를 위해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벤투스 그 파워를 기대한다.

금호산업(주) 타이어 사업부

미래 컨셉 제품인 Intelligent Tire 기술공유를 위한 전략적 제휴 공식천명

▶타이어산업 최초로 국제 conference 국내 개최 및 금호타이어 신형인 사장 세계 타이어업계 대표로 기조 연설
▶시장지향적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으로 고수의 창출
신형인 사장은 부산 BEXCO에서 열린 ITEC ASIA 2001에서 'The Tire Industry in Asia, working with the customer'라는 주제로 국내업계를 대표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ITEC(International Tire Exhibition & Conference)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Automotive News', 'Tire Business', 'Rubber & Plastic News' 등의 자동차 관련 전문 잡지를 발행하는 영국소재 Crain Communications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94년부터 미국 Akron에서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는 행사이다. 미국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번 부산행사가 처음이다.

ITEC 행사에는 전세계 타이어 산업 관련 연구원, 마케터, 설비, 원재료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상호간에 정보교류 및 타이어 제품의 미래기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는 곳이다.

이번 행사가 아시아에서 열리게 된 것은 아시아가 전세계 타이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 아시아가 타이어의 핵심 원재료인 천연고무를 전세계 공급량의 90%, 약 6백 30만 톤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전세계 물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북미와 유럽의 수요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ITEC ASIA 2001에서 국내 업체를 대표하여 기조연설을 한 신형인 사장은 점점 고객과의 욕구가 세분화되고 있는 타이어 시장에서, 아시아의 타이어 메이커들은 역사적, 지리적 배경의 다양성을 기회로 삼아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그 중심에 금호타이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금호타이어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넘어가는 타이어 산업의 격변기에 창조적인 도전정신과 아낌없는 연구개발투자로 세계 타이어 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신형인 사장은 "미래의 타이어 기술은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이것이 제품개발의 방향이라며, 이러한 컨셉의 제품이 Intelligent Tire"라 하였다. 금호타이어가 '99년 개발한 것으로 주행을 타이어에 펑크가 나도 시속 80km로 2시간을 달릴 수 있는 런플랫(Run-Flat) 타이어 등은 Intelligent Tire 개발의 전당표라 할 수 있다.

Intelligent Tire는 차내의 전자시스템, 휠 및 서스펜션 등과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되며, 타이어의 공기압 및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운전자에게 전달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Intelligent

Tire는 미래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될 것이며, 타이어 제조회사의 고수의 제품군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선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기술혁신이 필요하고, 또한 신기술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타이어 업체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금호타이어는 그러한 기술을 공유할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하였다.

금호타이어는 미래지향적이며 고수의 제품군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소를 네트워크화한 R&D 삼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를 연간 매출액의 3.5~4%를 책정하여 신상품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4월에 미국 Akron에 위치한 KTC(Kumhp Technical Center)를 확장 증공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일본 모터스포츠 성공적 진입

▶타이어의 한계에 도전하는 Super Taikyū 내구 레이스 Class 3위 입상

▶일본 UHP 타이어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한 전조기 확보

금호타이어는 2001년 9월 8(토)~9월 9(일) 이틀간 일본 TI Circuit에서 펼쳐진 "2001 Super Taikyū(슈퍼 내구레이스)" 6전에서 "엑스타(ECSTA)"팀을 출전시켜 Class 3위로 입상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일본 Super Taikyū는 미국의 메이토나 24, 유럽의 르망 24에 버금가는 아시아 최고의 내구레이스 대회로 자동차와 타이어의 가혹한 한계에 도전하여 기술력을 평가받는 경기로 유명하며, 미국 및 유럽에서 열리는 내구력 위주의 레이스와는 달리 타이어의 내구력 뿐만 아니라 급격한 코너링과 브레이크 성능 등 Performance까지 집중 받는 경기로 년간 시리즈로 개최되는 경기이다. 따라서, 금호타이어는 일본 UHP 타이어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는 차원에서 완주를 목표로 출전하였으나, 기대 이상으로 Class 3위로 입상함에 따라 내구력은 물론 코너링, 브레이크 성능 등 Performance 까지 인정받아 일본축대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본 타이어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본 대회에 입상은 2001년 YOKOHAMA의 국내 모터스포츠계 진입에 대응하는 금호타이어의 일본 모터스포츠계 성공적 역공이라는 의미와 향후 일본 UHP 타이어 시장 확대에 자신감을 얻었다는 무형의 효과 창출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2001년 남은 7전 및 8전의 시리즈 경기도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의 조동근 마케팅장은 "이번 일본 Super Taikyū 내구 레이스 완주 및 입상은 UHP 타이어의 대표 브랜드인 '엑스타(ECSTA)'의 성공 가능성과 F-3 및 Daytona 24 대회 등에서 보여준 우수성이 일본에서도 입증된 것으로 보여져 이제는 전세계의 어떤 브랜드와도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독일 Volkswagen에 자사브랜드 납품 개시

▶Volkswagen 멕시코에서 생산중인 Beetle Sedan용 타이어 년산 25만 개 전량 납품 예정
▶Global 모터스포츠 활동에서 인정받은 금호타이어의 품질 우수성이 세계적인 자동차업체 납품으로 계획

금호타이어는 독일 Volkswagen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중인 Beetle Sedan용 타이어를 금호타이어 브랜드로 10월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Volkswagen 납품 배경은 유럽 폭스바겐사 타이어 공급을 위한 제품 평가를 통해, 금호타이어 승용차 타이어의 품질과 기술력을 Volkswagen으로부터 이미 인정 받았으며, 최근 대규모 타이어 리콜 사태로 인한 자체 타이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 공급업체보다 금호타이어 제품이 월등히 앞선 평가 결과가 나타나, Volkswagen 요청에 의해 전격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금호타이어 관계자가 밝혔다.

금번 Volkswagen Beetle Sedan용 타이어 공급자의 전격적인 교체로 인하여, Volkswagen 멕시코 공장은 충분한 사전 물량 확보가 필요한 만큼, 금호타이어에 2001년 말까지는 Beetle Sedan용 3만여개를 납품하고, 2002년부터는 100%인 약 25만개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금호타이어는 Volkswagen 멕시코 공장 공급으로 인해 \$500만의 매출 증대 효과 뿐만 아니라 향후 교체시장에서의 재구매율 효과 등으로 연간 \$650만 이상의 추가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관계자는 이번 공급의 보다 큰 의의로 멕시코 Volkswagen 기존 납품업체인 세계적인 타이어사를 대체하여 공급하게 된 점과, Volkswagen 공급을 위해서 세계 자동차 품질인증 중 가장 까다롭다는 독일자동차협회 품질 표준인 VDA 인증(참조)을 획득함으로써, 앞으로 독일 Volkswagen을 비롯한 유럽, 북미 완성차 업체에도 타이어 공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선 납품 가격이 타결된 폭스바겐 멕시코만 공급기로 하였고 타사에는 납품 가격이 만족되어야 공급을 한다는 입장이라는 수의성에 바탕을 두고 브랜드를 인정받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세계 10위의 타이어 회사로써 금호타이어는 회사의 경영 목표인 수익성 제1의 타이어 회사를 조기에 달성하고, 세계 유사 수준의 제조사들과 차별화를 위해, 유럽 및 북미 선진시장에서 고수익성 제품인 UHP 판매를 현재의 연간 250만 본에서 2005년 700만 본까지 증가시킬 경영 체계를 이미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고수의 제품 판매 달성을 위하여 국제적인 레이싱 경기인 Intl KOREA Super Prix F-3 공식타이어 선정을 기점으로 2001년에는 세계적인 내구레이스 대회인 미국 메이토나 24와 일본 슈퍼 내구레이스 등에 잇단 참가하여, 금호타이어 품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확인시킨바 있으며 지속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주) VDA 인증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 :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인정하는 품질 표준으로 북미 자동차 QS9000과 유사한 인증인.

넥센타이어(주)

바람직한 구조조정 강연

이규상 사장은 지난 9월 18일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성공 경영인 초청토론"에 참가하여 넥센타이어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정과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방송이 나간 직후 정부부처를 비롯한 각종 단체로부터 강의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9월 19일과 10월 11일경에는 영산대학교와 한국조세연구원에서도 초청강연을 하였다. 이제 넥센타이어의 구조조정 과정은 "구조조정 교과서"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제1차 품질교육 실시

당사의 해외 거래선 7개국의 바이어들이 지난 9월 15일에 양산공장본사를 방문했다. S. ARABIA의 Alamoudi를 비롯한 총 9명의 해외 바이어들은 15일에서 20일까지 본사에 머무르면서 품질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본사공장견학을 비롯하여 16, 18일에 열린 넥센타이어 로디안축제와 ITEC 행사에 참가하였다. 본사는 이들에게 생산 및 품질교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일에는 모두에게 수료증을 증정하였다. 바이어 모두는 본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였으며 넥센의 품질이미지에 신뢰를 가지고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이러한 해외거래선에 대한 본사의 품질교육은 계속 실시될 예정이며 앞으로 향후의 넥센에 대한 인지도에 박차를 가할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중학교 공장견학

양산에 위치한 동아중학교 학생 160여명이 8명의 선생님과 함께 10월 17일경 당사 양산공장본사를 견학하였다. 이번 공장견학은 타이어가 만들어지는 공정라인을 실제 몸소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의 눈을 넓히는데 좋은 기회였다. 또한 당사 타이어의 신뢰성 있는 공장현장을 통해 안전에 관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견학 도중에도 농활세라 메모를 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ITEC ASIA 2001 행사

당사는 2001. 9. 18~20 3일간 BEXCO(부산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ITEC ASIA 2001 행사에 전시업체로 참가 내외 방문객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다. 미국 아크론에서 2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본 행사는 타이어 관련 산업 및 최근 기술 동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타이어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개최되어 타이어 생산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차와 함께 당사의 21세기 새롭게 도약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KISWARE(고려강선), 효성, 코오롱 등 30여개 업체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 당사는 지평편비의 신제품 및 칼라 타이어를 전시하였으며, 빛을 주

제로 한 부스는 행사 관계자와 전시참가 업체 및 방문객으로 부터 호평을 받았다.

2001년 로디안축제

2001년 로디안축제가 9월 16일 양산대학 운동장에서 2000여명의 본사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2000년 '넥센'을 새롭게 발돋움하여 발전해온 가운데 두 번째 열리는 화합의 장이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임직원들과 가족모두의 노고를 로디안 축제의 한마당에서 풀어보고 노사간의 화합의 발전을 더욱더 도모하자는 의미가 큰 행사였다. 이번 축제에는 고적대의 멋진 음악과 율동을 비롯하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축구, 배구, 축구 정식종목과 그 외 가족들을 위한 자전거 놀이, 타이어굴리기, 발야구 등의 게임이 진행되었다.

이날 축구의 우승에는 제조 2과가 차지하였고 배구와 축구 우승은 모두 기술연구소에서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로디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장기자랑코너는 음악과 춤이 함께한 즐거운 한마당이었다. 이날 장기자랑 코너에서는 멋진 노래와 춤을 보여준 재로시합 그룹의 이영우사우가 대상을 차지하였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기대속에서 행운권 추첨의 주인공은 B생산팀의 하동만사우가 뽑히는 영광을 안았다.

모두가 늦은 밤까지 함께한 이번 축제는 삭막해져가는 노사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좋은 자리였으며 서로간의 신뢰를 더욱 높여주는 다짐과 함께 이번 넥센타이어의 로디안축제는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2001년도 양산지역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 "종합우승"

지난 10월 21일 양산지역 근로자의 친선을 도모하고 각 단사 근로자간 단결과 화합을 통하여 노총의 결집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노총 양산지역지부의 주최로 2001년도 지역 근로자 친선 체육대회가 노총지부 산하 35개 단위 사업장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 축구, 불링, 탁구 이상 4종목의 경기가 양산시 5개 경기장(양산공설운동장, 삼성중학교, 한일제관운동장, 양주초등학교, 공수만탁구교실)에서 각각 분산 개최되었으며 당일 개막식에는 국회의원(나오연), 양산시장(안종길), 양산시의회의장(정세영), 양산노동사무소장(심계동), 양산시의회의원(조분관 외)을 비롯하여 각계 기관장이 참석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장 사장 및 임원진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해 보다 성대히 치러졌다.

이날 당 노동조합 위원장이며 한국노총 양산지역 지부 의장이신 이성경 의장은 대회를 통해 한국노총 양산지역지부 산하 전 단위사업장의 화합과 단결을 통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강한 노총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노총은 강력한 조직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강한 노총의 건설과 더불어 각 단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약속하였다.

당사 로디안 선수단은 본 대회 우승을 목표로 축구 26명, 축구 10명, 불링 8명, 탁구 6명등 총 50명의 선수단을 구성하여 지난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A조 근무후 하루 3시간씩 약 2주간의 훈련기

간을 가졌고 각 종목별 선수들의 팀목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지난 99년도 본 대회 종합우승의 기쁨을 맛보았던 선수들은 더욱 욕망의 의지를 불태웠다. 본 대회 하이라이트는 축구D조 경기였으며 D조에는 99년도 우승팀인 당사팀을 비롯하여 2000년도 우승팀인 삼양식품 그리고 삼양식품보다 한수위라는 평을 듣고 있는 롯데칠성 이상 3팀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어느조보다 힘든 경기를 치러야하는 부담을 당사팀은 안고 있었다. 그러나 첫 경기는 예상외로 순조롭게 풀려 나갔다. 당사팀은 효율성있는 불배공과 조직력을 앞세워 삼양식품과의 경기에서 3:1로 승리함으로써 축구우승을 예고 하였다.

축구에서 두 번째경기는 롯데칠성과의 경기였으며 전전전 동안 월드컵 경기를 펼치기도 골결정력 부족으로 한점도 올리지 못하고 있어 정말 답답한 지경이었다. 후반전에는 엄철민 팀원적으로 당사팀이 환골을 허용하면서 패색이 짙었으나 종료 2분을 남겨두고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 놓았다. 그리고 P.K경기에서 5:4로 승리하면서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타 구장 경기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한일제관과 부일택시, 한창 제지가 모두 예선탈락 하면서 축구우승의 목표달성은 더욱 가까이 왔다. 준결승인 동경정화와의 경기는 후보선수까지 기용하는 여율을 보이며 3:0으로 원승을 거두었다.

이시작 불링은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과 함께 탁구는 준결승과 3, 4위전에서 패하여 결국 4위를 차지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축구경기 또는 준결승에서 양산지역 만년우승팀인 삼천리자전거를 2:0으로 대파하고 다크호스도 급부상한 삼양식품에게 2:0으로 패하여 3, 4위전으로 밀림으로서 종합우승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축구결승전에 진출한 고려상사는 탁구에서 우승하여 40점의 점수를 확보한 상황 이윽고 축구를 우승할시 종합점수 90점, 준우승할시 종합점수 80점으로 종합우승 1순위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팀은 불링에서 3위를 하여 겨우 종합점수 20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축구를 우승(50점)과 축구 3위(20점)을 차지해야 만이 종합우승을 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있었다.

축구결승 경기보다 먼저 벌어진 축구경기는 한일제관과의 3, 4위전 경기였다. 종합우승의 부담감 속에서도 축구선수들은 여율을 보이며 한일제관을 2:0의 승리하며 종합점수를 20점추가 확보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벌어진 축구결승인 고려상사와 당사팀과의 경기는 월드컵 팀목을 보여준 당사팀의 3:1 승리였다.

결국 종합점수 90점(축구 1위, 불링 3위, 축구 3위)으로 종합점수 80점의 고려상사를 제치고 1999년 종합우승이후 또 한번의 종합우승이었으며 지역 사업장중 가장 으뜸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종합우승의 기쁨을 두배로 맛보게 하였던 것은 2주간의 힘든 훈련기간과 더불어 대회 당일 경기 결승전까지 단한명의 부상 선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종합우승을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종합우승의 자리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조함원과 전직원의 명예를 더하여준 선수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은 전하며 2002년에도 값진 승리를 통한 종합우승기를 하려는이 휘날릴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번 글을 줄인다.